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상명대 '2026 충남IT 해커톤' 성료... 충남지역 대학생 24팀 72명 치열한 경쟁

행사 운영 이끈 김나현 학생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도전할 기회가 이어지길"

정철희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6-11-15 10:00



2026 충남 IT 해커톤에 참가한 충남지역 대학생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사진=정철희 기자)

충남지역 대학생들이 실제 정보보안 환경을 구현한 서버를 기반으로 점령과 방어 역량을 겨루며 정보보호 분야 실무 능력을 강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와 상명대학교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공과대학이 주관한 '2026 충

남IT 해커톤'은 14일 상명대 천안캠퍼스 한누리관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충남지역 대학생 24팀 72명이 3인 1팀으로 참가해 늦은 시간까지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2025년 CTF 방식에서 '고지점령' 방식으로 변경됐다.

참가팀은 운영진이 마련한 대회용 서버의 취약점을 분석해 관리자 권한을 얻고 점령을 인증했으며 점령을 유지한 시간만큼 점수를 쌓았다.

점령한 팀이 취약점을 패치해 다른 팀의 접근을 막는 방어전도 펼쳐졌고, 대회 종료 1시간 전부터 점수판이 비공개로 전환돼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더했다.



접전 끝에 3팀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정철희 기자)

치열한 접전 끝에 대상으로 건양대·백석대·상명대 연합 team2팀이 상명대 총장상, 상명대 23학번팀이 KISA 원장상, 건양대·공주대·순천향대 연합 졸업유예지현근팀이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상 등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건양대 건냥이들팀, 상명대 404팀, 순천향대·호서대 연합 team3팀, 상명대 STACKED팀, 우수상은 선문대 NULL팀 등 4팀이 받았다.

문제 출제와 운영을 이끈 상명대 코드큐어 동아리 회장 김나현 학생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내 준 만큼, '오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문제의 완성도와 대회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걱정도 많았지만 함께 고생해준 동아리 임원진들 덕분에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도전할 기회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관계자는 "서버를 두고 치열하게 겨루던 학생들이 대회가 끝난 뒤 공격 기법과 방어 노하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런 교류가 지역 중심의 정보보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